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6~4/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밀교의 성불원리:이번생에 바로 성불하는 티베트불교의 수행법	중암 선혜 역해	불광출판사	6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탄하삼성/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사십구재란 무엇인가(생활불교총서1)	효림 지음	동진삼보기획	7	부처님의 당부:초기경전에서 선별한 지혜의 말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4	불멸(3)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9	가사체승만경과 정본한문승만경	지운, 이인자, 조현충, 천희완, 김순남 공역	운주사
5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10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특별판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책세상

1950년~2020년 베스트셀러 불교책 '한자리에'



도)민족사, 4월 3~6일 국제불교박람회서
이광수 〈원효대사〉 법륜 〈인생수업〉 등
베스트셀러 올랐던 17종 역대 불서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서 출판' 한길을 걸어온 도서출판 민족사는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박람회에서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베스트셀러가 된 불교책 17종을 전시한다.

한국 출판계에서 불교 서적의 의미는 종교 서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인문, 철학, 문학을 아우르는 교양서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1950년부터 베스트셀러에 오른 불교 서적은 불교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며, 종교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때는 불교 서적 중에서 밀리언셀러가 나오기도 했지만 출판 시장의 축소로 인해 이제는 그 예를 다시 보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불교 서적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독자들에게 삶의 지혜와 성찰 등 유익함을 전하는 '책'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불교 서적이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조명하고, 그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 책이 단순한 신앙서가 아니라 철학이자 문학으로서 자리매김해온 과정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 서적이 전하는 지혜와 감동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950~1970년대
전쟁의 상흔과 불교적 성찰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로 복구할 것들이 많았다. 대중은 물질적 궁핍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간 본연의 괴로움과 해답을 담고 있는 불서들은 시대적으로 대중과 잘 어울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1948)와 김일엽의 〈청춘을 불사르고〉(1962)이다.

〈원효대사〉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불교철학과 원효의 삶을 재조명하며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책은 194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226회 연재된 후, 1948년 생활사에서 2권으로 발행됐다. 1956년 12월 광영사에서 합본 출간한 뒤, 불교소설 최초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을 통해 원효대사는 1300여 년 만에 파계승이라는 낙인을 벗고 위대한 고승, 민족 사상가로 재조명됐다.

1960년대에는 김일엽의 〈청춘을 불사르고〉가 출간됐다. 불교적 삶을 선택한 후 34년 만인 1962년, 오랜 침묵을 깨고 발표한 자전적 수필집으로 어린 시절, 이성 관계, 결혼과 실패, 그리고 33세에 출가하여 불문에 입문하기까지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약 12편의 글이 실린 이 책은 출간 후 5개월 만에 5판이 인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950년대~2020년, 베스트셀러 불교책 17종

1. **〈원효대사〉** 춘원 이광수, 1956년 12월 광영사
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962년 7월, 문선각
3. **〈무소유〉** 법정, 1976년 4월, 범우사
4. **〈만다라〉** 김성동, 1979년 11월, 한국문학사
5.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1980년 4월, 정다운
6. **〈우담바라〉** 남지심, 1988년 11월, 고려원
7. **〈화엄경〉** 고은, 1991년, 민음사
8. **〈길 없는 길〉** 최인호, 1993년, 샘터
9.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각, 1999년, 열림원
10.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문학의 숲
11. **〈오두막 편지〉** 법정, 1999년 12월, 이레
12. **〈일기일회〉** 법정, 2009년 5월. 문학의 숲
13.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2001년, 김영사
1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2012년, 샘앤파커스
15. **〈화〉** 틱낫한, 2013년 4월, 명진출판사
16. **〈스님의 주례사〉** 법륜, 2010년 5월, 휴
17. **〈인생수업〉** 법륜, 2013년 10월, 휴

△1970~1990년대
사회 변혁과 함께 성장한 불교 서적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 민주화운동 등 격변의 사대였다. 1980년대는 불교 출판의 도약기로, 불교를 소재로 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내면의 갈등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수행, 명상, 무소유 정신을 강조한 불교 서적들이 주목받았으며, 불교 철학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1976)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가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책 〈무소유〉와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책은 1976년 초판 출간 이후 2010년 3월까지 86쇄를 기록했으며, 33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무소유〉 외에도 〈산에는 꽃이 피네〉(1998), 〈오두막 편지〉(1999) 등 법정 스님의 책들은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김성동의 〈만다라〉(1979)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을 던진 불교적 색채가 짙은 소설로 큰 사랑을 받았다. 〈만다라〉는 '불교소설'로서는 드물게 100만부 판매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981년에 영화로도 제작됐다.

남지심의 〈우담바라〉(1988)는 불교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을 서사적으로 녹여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출판 후 1주일 만에 1만 5000부가 판매됐고, 총 600만부 이상 팔리며 불교 문학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또 다른 작품으로 고은의 〈화엄경〉(1991)이 있다. 한국 현대 문학의 거장이자 시인인 고은은 불교의 대표 경전인 〈화엄경〉의 맨 마지막 장(章)인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구하는 구도 과정을 장편 서사시 형식으로 소설화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문학적 성취로도 인정받았으며, 불교적 세계관을 철학적·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남아 있다. 〈화엄경〉의 사사무애(事事無碍, 사물과 사물 간에도 걸림이 없다) 사상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상 인물이나 지역, 영역,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정다운, 1980), 〈길 없는 길〉(최인호, 1993),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현각, 1999),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1998), 〈오두막 편지〉(법정, 1999) 등이 당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00년대 이후 – 치유와 명상의 시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교 서적의 흐름은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가르침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명상과 치유, 행복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불교가 더 이상 특정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닌 현대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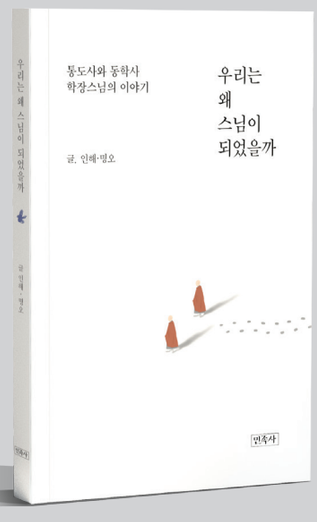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2)은 출간 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출간 당시, 사회적으로 심리적 치유와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여러 명상 및 마음 치유 서적들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의 주례사〉(2010)는 평화 운동가이자 불교계 대표 법사 법륜 스님의 대표작이다. 일반 대중을 주축으로 한 '즉문즉설'을 통해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누적 판매량 48만 부를 돌파했다.

이 밖에도 〈일기일회〉(법정, 2009),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달라이 라마, 2001), 〈인생수업〉 (법륜, 2013), 〈화〉(틱낫한, 2013) 등이 있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